

‘서른 이야기’ …특별하지 않은 보통의 삼십대 인생 다룬 책 아이 엄마, ‘중고 사원’, 사표타령 직장인, 올드미스…

홍은_ MBC 드라마넷 편성팀

삼십, 불안한 기대의 숫자여

29살이 되었을 때 나는 한동안 ‘서른’이라는 숫자에 연연했었다. 노래방에 가면 어김없이 마지막 곡으로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를 부르고 서점에 가면 유독 나이에 관련된 책들을 찾아 탐닉하곤 했다. 세상일은 시간에 기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니, 서른 즈음이 되면 더 이상 불안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꽤나 그럴듯한 어른이 되어 세상의 한 귀퉁이에서라도 보람된 일을 하며 살아갈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졌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얼마나 터무니 없는 것이었는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극대화되었다.

미처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나는 서른을 준비하는 주변 친구들의 목소리를 담아 ‘서른’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세웠다. 5, 6년차 직장인이 되는 친구도 있고, 공부 좋아 계속 학문을 하며 박사논문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일찌감치 결혼해 초등학교 입학생의 엄마가 돼있는 친구도 있었다. “서른이 된다니 기분이 어때?” “무엇이 달라질까?” “아쉬운 점은 뭐야?” “서른에 꼭 하고 싶은 일은?” “사랑과 우정, 꿈 이 세 단어 중 10대, 20대, 30대에 어울리는 단어를 줄짓기 해볼래?” 다소 두서없는 질문들을 핑계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고, 서른 살을 맞는 불안한 기대감을 그들과 공유하며 위로받았었다.

나를 이겨야 하는 선택의 기로

“서른이야 서른! 이런 세상에나”라고 울부짖으며 꽤나 요란스럽게 되지도 않는 의미 부여를 해가며 아등바등 하는 사이 30을 지나 벌써 32살이라는 시간에 서 있다. 그런데 여전히 30세를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미숙한 게 사실이다. 20살, 성인이 됐을

때는 나이먹음을 장미와 향수로 축하했는데 왜 유독 삼십대를 바라보면서는 어렵고 거대한 숙제를 맞닥뜨린 느낌을 갖게 될까? 그건 아마도 30대는 선택하는 시기이기 때문인 것 같다.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온 친구들은 이제 중간 관리자급의 경력이 되고 그동안의 사회생활에 다소 지치기도 하는 시기인지라 계속 앞으로 나아갈지 충전의 시간을 가질지를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20대에 결혼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결혼에 대해 주변과 스스로의 압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때이기도 하다. 일찌감치 결혼을 한 친구들은 꽤나 큰 자녀들 덕에 조금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한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꿈에 대한 미련을 다시 꺼내보기도 한다.

함께 학교를 다니고, 시험을 보던 일률적인 우리의 이력들은 30대가 되면서 다들 자신들만의 이력을 만들 기회를 얻는다.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길 중 한동안 어지게 될 새로운 길이 시작되는 갈림길에 서서 잠시 호흡을 하는 시간이 30대의 시작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나는 이겨야 한다. 안주하려는 나를, 나약해지려는 나를, 도망치려는 나를 이겨야 한다. 나는 지금 삼십대의 삶에 서 있기 때문이다” 라는 모회사 광고 카피에서도 말하듯이, 그렇게 조금은 비장하게 말이다.

올드미스, 아이엄마, 학생..., 서른도 가지가지

서른 타령이 너무 길었나? 굳이 “나 삼십대다”라고 외치듯 줄줄이 서른 이야기를 한 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책이 서른에 대한 책이기 때문이다. 기존에 출판된 책 중에 나이에 대한 책이 없는 건 아니다. 특히 요즘들어 나이

들의 미학을 말하는 책들이 많이 출판되었다. 그뿐인가? 서른 살에 대한 책들도 제법 많다. 앞에서 인용한 잉게보르크 바흐만의 《삼십세》는 서른을 맞는 사람이 읽어야 할 필독서처럼 된 지 오래고, 몇몇 국내 작가들이 쓴 서른 테마의 소설목록 《서른 살의 강》도 있다. 나름대로 서른에 대해 심오한 정의와 철학을 내미는 수필집들도 간간히 보인다.

하지만 내가 만나고픈 서른에 대한 책은 바로 내 친구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삼십대 여자들의 이야기이다. 왜 굳이 서른 살 여자냐고? 그건 다름 아닌 내가 삼십대 여자이기 때문이고, 아직 사십대에 가보지 못한 나로서는 감히 삼십대 여자만큼 다양한 부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누군가 말했다. 30대 여자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하나는 '결혼하는 여자' 또 하나는 '여행가는 여자'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30대 여자들에겐 정말 다양한 삶이 존재한다. 이제 막 결혼해서 직장 생활과 결혼생활 사이에서 힘겹게 줄다리기를 하는 여자, 아이를 가질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 여자, 이미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보며 새삼 다시 자신의 꿈을 살짝 꺼내보는 여자, 수십 차례의 맞선자리가 싫으면서도 매주 주말 호텔 커피숍을 전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는 여자,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밀려 하루에도 몇 번씩 사표를 썼다 지웠다 하는 여자, 일에서 인정받고 소주 3병쯤은 거뜬히 마실 만큼 와일드한 삶을 살지만 빈 집 현관문을 열 때는 어딘가 쓸쓸한 여자. 어디 그뿐이랴.

요즘 드라마에선 30대 여성들이 흔히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다. '올드미스'라는 꼬리표를 달고 등장하는 그녀들의 삶에 한 편으로는 공감하며 지지를 보내지만, 그녀들의 빼어난 외모와 그럴싸한 직장, 어디서도 안 빠지는 술 실력과 패션감각, 그리고 여전히 주변에 심심찮게 남아 있는 남자친구들. 그녀들의 현실은 실제 우리의 삶에 비해 갖춰진 것이 많기에 순간순간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게 사실이다. 그런 드라마 속 특별한 삼십대가 아닌 대다수 그저 우리네 30대를 살아가는 여자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 평범하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은 이야기를 담은 책이 나오면 어떨까 하는 것이다.

《서른 살 여자 30명과 만나다》 같은 일반인들의 목소리를 담은 삼십대 여자 이야기는 아마도 동질감과 의외성을 동시에 발견하게 되는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독자의 입장에서 내가 그 책을 읽게 된다면 나는 그 안에서 나와 같은 캐릭터를 만나는 즐거움과 전혀 다른 같은 나이의 삶을 훑어보는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스스로의 생각을 지지받고 싶어 하고 남의 문장을 내 문장인 듯 사용할 수 있는 어부지리의 기쁨도 느끼고파 한다. 그것은 너무 선언적이거나, '이것이 답이야' 라고 단정하지 않는 그저 사는 이야기, 진행형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강요당하지도, 자책하지도 않는 나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삼십대 중고사원’, 나는 어떤가요?

만약 내가 그 서른 명 중 한 명이 되어 글을 쓰게 된다면 나는 요즘 새롭게 시작된 삼십대 직장생활 이야기를 쓰게 될 것 같다. 나름대로 삼십대를 기념한답시고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떠난 여행, 마치 마지막 보루처럼 남겨두었던 여행을 다녀와서 뭔가 삶이 크게 변할 것이라던 기대와는 달리 쓸쓸한 통장잔고와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돈벌이의 압박. 요즘 새로운 회사에 적응하는 나 자신을 칭하는 말처럼 '삼십대 중고사원' 이야기가 될 것이다. 면접 때부터 나이에 대한 공격에 자존심이 다치기도 하고, '다시는 원서 넣고 면접보고 회사를 들어가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것으로 시작된 새로운 직장생활은 어려운 취업난에 간신히 거머쥔 행운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설레거나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신입이 아니니 무조건 몰라도 열심히 하는 성실함이 무기가 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몰라도 아는 척, 알고 있는 것의 1.5배는 더 잘난 척을 해야 그나마 기존 무리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사실 '경력사원'이라는 말보다는 전혀 신선하지도 긴장되지도 않는 중고물건 같은 느낌이 드는 '중고사원'이라는 호칭이 더 어울리겠다. 이런 삼십대 여자의 다시 시작된 회사생활의 이야기 또한 삼십대 이야기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길게 삼십 이야기를 늘어놓았더니 나는 벌써 삼십이라는 단어와 친해진 느낌이 든다. 그러니 우리는 좀더 길게, 자주 삼십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것은 나와 친해지기, 나이와 친해지기, 서른과 친해지기의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것이 또한 내가 서른 이야기책이 나오기를 바라는 큰 이유이기도 하다. **추천**

“30세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그를 보고 젊다고 부르는 것을 그치지 않는으리라. 하지만 그 자신은 일신상 아무런 변화를 찾아낼 수 없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불안정해져 간다. 스스로를 젊다고 배세우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잉게보르크 바흐만 《삼십세》 중에서